

건설산업과 국민 경제

1990년대 들어 국내총생산의 13% 이상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건설산업은 총고정자본의 형성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담당하는 기간 산업으로 지난 50년 간 주택 및 도로의 건설을 통해 국민 복지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고, 산업 기반시설의 공급을 통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에 꾸준히 기여해왔다. 특히,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와 경제를 재건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피하는 데 주역을 담당한 건설산업은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굳건한 반석을 제공하였고,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.

최근 WTO의 출범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질서를 확립하였다. 이에 따른 개방화의 추세는 시장 개방을 통한 건설산업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,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전 및 패러다임의 설정을 절실히 요하고 있다. 그러나, 오늘날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매우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. 면허 개방에 따른 업체 수 증가는 수주 경쟁의 심화와 이에 따른 건설 기업의 연쇄 부도를 야기하여 건설산업은 구조조정기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. 또한, 최근 발생한 대형 인재 사고는 건설산업 및 수많은 건설인들에게 부실 시공이라는 치명적인 오명을 남겼다.

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건설산업의 방향 설정이다. 본 연구는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과거를 조명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국민 경제적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, 이에 기초하여 미래의 건설산업이 갖는 비전 및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 본 연구의 결과가 21세기의 한국을 건설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건설 기업의 사기 진작 및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.